

익산예술의전당, 공연 · 전시 다채

기획공연 · 전시 · 교육 · 시민 참여형 시립예술단 공연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운영

익산시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올해도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를 선보인다. 익산예술의전당은 2025년 기획공연과 전시, 교육, 시민 참여형 시립예술단 공연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콘서트, 연극부터 클래식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

기획공연은 지난 1월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와 2월 뮤지컬 시카고를 시작으로 클래식, 가극,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예정돼 있다. 3월에는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과 '태권유랑단 녹두'가 관객을 맞이한다. 4월에는 아동을 위한 공연 '얼굴과 얼굴 마주 봄'을 비롯해 '가곡의 봄'이 감동의 무대를 선보인다. 5월에는 '디즈니 콘서트'와 '타카치 파르벳', 뮤지컬 '청춘연가', 연극 '바닷마을 다이아' 등이 무대를 빛낸다.

◆미술관 전시와 교육으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시는 다양한 미술관 전시를 통해 지역 작가들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응원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한다. 3월 한국미술협회 익산 작가 초대전을 시작으로, 5월에는 어린이 특별체험 전시와 아와 조각전이 열린다. 이어 6월 전북 도립미술관 찾아가는 미술관 협력 전시, 7월 지역 작가 초대전 등으로 지역 문화예술 교류를 확대한다. 예술교육은 3월부터 7월까지 성인 프로그램 △수채화 △한국화 △유화 △미술이론이 진행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오감 자극 표현기법 강좌가 운영된다.

◆익산시립예술단의 익산시 고유 브랜드 공연

익산시립예술단은 오는 4월 브랜드 공연인 '서쪽남자\동쪽여자'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익산시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올해도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를 선보인다.

전당 무대에 올리고, 합창단·무용단·풍물단 별로 정기 공연을 마련하는 등 시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3월부터 10월까지 △시민과 시립예술단이 함께하는 다 이로운 콘서트 △찾아가는 예술무대 '행복 플러스' △2025 시립예술단 예술체험무대 '예술야 놀자' 등을 추진한다.

익산예술의전당은 공연의 다양화를 통해 폭

넓은 문화예술의 향유를 도모하고 문화도시 익산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지원 익산예술의전당 관장은 "올해도 시민들에게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 경험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공연, 전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제95회 춘향제' 모두가 함께 즐기는 성공 축제 만든다

남원시, 참여형 소통형 프로그램 다채

남원시가 오는 4월 30일 개막 예정인 제95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95회 남원 춘향제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 남원 관한루 및 요천변 일원에서 펼쳐지며, 기념비적인 100회 지역축제 개최를 5년여 앞두고 펼쳐지는 만큼, 글로벌 축제화, 첨단과 문화를 잇는 지역축제 저변 확대 등에 집중하며 관람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라는 주제로 개최, 소리의 고장이자 국악의 성지로 손꼽히는 남원의 특색을 살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소리와 기술이 융합된 △한국의 소리 △세계의 소리 △융화의 소리를 메인테마로 100여 가지의 다양한 공연을 구성, 풍성한 볼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대표적인 행사인 춘향선발대회는 전야제의 성격으로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로 춘향제의 화려한 포문을 열 예정이며, 시민들과 함께 꾸며가는 다양한 퍼포먼스가 펼쳐지는 대동갈bene는 <춘향전>에 나오는 명장면들을 각색해 보다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계획이다.

특히 축제 기간에는 현대국악과 대중가수 콘서트인 <일장춘몽 콘서트>가 펼쳐지고, 새롭게 조성된 유채꽃밭을 통해 관광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착한 먹거리 축제에 준비, 백종원 요리연구가와 함께하는 바가지요 금 없는 착한 축제 먹거리 개발사업도 더본코리아와 협업해 '더본존'과 '바베리존'을 운영하고, 주민들이 참여한 향토음식 푸드코너도 마련해 눈과 귀와 함께 입도 즐거운 축제로 자리매김한다는 복안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최지영 작가 기획초대전 '공(空)과 원(圓)'

순창군 공립옥천골미술관에서 7일~4월 7일 개최

한국화가 최지영 작가의 기획초대전 '공(空)과 원(圓)'이 오는 7일부터 4월 7일까지 순창군 공립옥천골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오랜 시간 탐구해 온 명상적 회화 작업을 바탕으로, 동양철학과 불교 사상을 시각적으로 풀어낸 작품들을 선보인다.

최지영 작가는 한지 위에 먹을 사용해 원(圓)의 반복과 여백(空)의 조화를 탐구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그의 작품에서 원은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가 아니라, 존재와 무(無), 생성과 소멸의 순환을 의미하는 철학적 상징으로 표현된다. 작품 속 원들은 일정한 구조를 따르면서도 자유롭게 확장하고 해체되며, 관객들에게 삶과 우주의 근원적 질서를 사유하게 하는 몰입적 경험을 제공한다.

전시에서는 특히 명상 음악과 함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시각과 청



각이 어우러지는 명상적 공간이 연출된다. 작가는 "공(空)은 단순한 결여가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내재된 공간이며, 원(圓)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흐름이다"며 "관객들이 작품 속에서 존재의 근원적인 리듬과 자신만의 사유를 발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지영 작가는 지금까지 개인전 15회, 단체전 200여회 이상 참여하며 한국화의 깊이를 확장해 왔다. 현재 전북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한국화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여러 기관에서 미술 인문학을 강의하며 학문적 탐구와 창작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작가는 "이번 기획초대전은 단순한 조형적 탐구를 넘어 동양철학과 불교 사상의 깊이를 담고 있어, 관객들에게 사유의 여지를 제공하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전시가 현대 한국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조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4월 7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문의는 순창군 공립옥천골미술관으로 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부안군, 국립극장 지역 문화거점 공연 공모사업 선정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극장 주관하는 2025년 국립극장 지역 문화거점 공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안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부안예술회관)는 국비 4300여만원을 확보하며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대표 공연인 '노크(NOK)시네마'를 유치했다.

국립극장 지역 문화거점 공연사업은 국립극장 전속 단체(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우수 레퍼토리 작품을 지역공연장에서 선보이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 공간을 활성화하고 부안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공모에서 부안예술회관은 국립극장 세 개의 전속 단체 중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국립국악관현악단 공연을 유치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노크(NOK)시네마는 국악관현악과 영화음악이 결합된 독창적인 공연으로 전통 국악기의 연주와 영상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형태의 무대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찰리 채플린 시리즈, 로마의 휴일, 티파니에서 아침을 등 고전 영화 속 명곡들을 국악으로 새롭게 해석해 선보일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진행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3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인 '예술길잡이, 도슨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4월 도립미술관에 따르면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은 미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시설명자 원봉사자(도슨트)를 선발·운영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전시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을 제공하고, 미술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자 한다.

올해는 전주시 발주로 (사)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부설 근현대미술연구소가 수행한 '전주 미술사 정립을 위한 근현대 작가 연구' 사업 결과를 공유한다.

참여 연구원이 강사로 초청돼 전북미술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높이고, 지역 미술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수강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도립미술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정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종단 형회경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었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